

CTC바이오, 불확실성 증가 “우려”

신한증권, 매출·영업이익 하향조정 ... 동물약품·단미사료 성장둔화

굿모닝신한증권은 CTC바이오에 대해 업황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2006년과 향후 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한다고 12월5일 밝혔다.

200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73억원, 32억원에서 448억원, 14억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2007년과 2008년 매출액은 545억원→498억원, 645억원→560억원, 영업이익은 47억원→20억원, 69억원→34억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주영 애널리스트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 사육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동물약품과 단미보조사료 시장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여기에 제약산업 규제 강화로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의약품 기술판매로 연결되기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CTC바이오는 2006년 3/4분기까지 누계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한 337억6000만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37.7% 감소한 11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이주영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한-미 FTA 협상 등 제도변화에 기인한 제약산업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술판매가 지연돼 제약사업은 당초 기대했던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5>